

## 1. 개관

제주지역은 전국에 비하여 특이한 패턴의 토지이용 구조와 기후 및 지리적 격리성에 따라 예로부터 독립적인 지역으로 발전하여 오는 가운데 지역의 경제규모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획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농업, 축산, 수산, 관광 분야에서의 풍부한 부존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산발적이고 일반적인 개발만이 시도되었으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기점으로 하여 지방 및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의 애로요인이었던 도로, 용수, 전력,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대됨으로써 산업경제의 생산기반이 구축되었고, 관광개발이 촉진되어 제주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1986~2003년 기간 중 연평균 12.62%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이와 같은 제주지역 경제발전의 힘입어 제주시 권역도 같은 추세로 발전하여 왔다. 2003년까지 제주시 지역의 성장과정을 보면 제주도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힘입어 도·농 복합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어 왔고, 성장도시의 기본 틀 위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제주시는 도시기반을 정비·확충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근교농업의 개발육성을 촉진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주력하여 왔는데 그 결과 제주시는 현재 제주도 전역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교육, 문화, 산업 등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였고, 국제공항 및 항만을 겸비한 관문도시로서, 관광휴양도시로서, 전국 시 중 명실상부한 도·농 복합 관광도시로 성장하였고, 신·구시가지의 도시형태로 양분되어 있으며, 시민의 의식구조면에서는 보수·온건·전통성을 지향하고 있다.

## 2. 인구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산요소 중의 하나인 노동력의 원천이 되는 인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1955년 제주시로 승격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1955년 제주시의 총인구는 5만9천6백62명, 세대수는 1만1천7백9세대였으나 2003년 현재 인구는 29만2천9백8명으로 4.91배 증가하여 제주도 인구 55만3천8백64명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10만1천9백76세대로 8.71배 증가하여 제주도 세대수 19만4천8백55세대의 52.33%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당 인구수는 1955년 5.1명에서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에는 2.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율도 제주도 전체가 1955~2003년 기간 중 연평균 1.37%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제주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3.37%를 기록하여 제주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보다 2%p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연대별로 구분해 보면 1950년대에는 1.42%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1960년대(4.44%), 1970년대(5.12%)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는 3.62%로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이후 1990년대 1.79%, 2000년대 1.65%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도 2003년 현재 제주도가 299.7명/km<sup>2</sup>인데 비하여 제주시는 1,146.3명/km<sup>2</sup>으로 제주도 전체보다 3.82배의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의 인구이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대부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10만 인구를 기록한 것은 감귤원 등의 조성으로 인한 육지로부터의 산업인구 유입과 제주도의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투자증대 및 이로 인한 고용기회의 증대 그리고 개발에 편승하여 일어난 부동산 투기 등 경제적 이익 추구 기회의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산업 및 취업구조

제주도의 발전 추세에 따라 제주시 지역경제도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제주시 경제성장예 관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의 경제규모의 성장을 나타내는 경제자료를 개관하면서 제주시 지역경제 규모의 발전면모를 추론하기로 한다.

먼저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지역내총생산은 1985년 7,951억 4,000만원에서 연평균 12.62%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6조 7,384억원에 이르러 8.47배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도 1985년에 161만 2,900원(\$1,852.7)에서 연평균 12.11% 증가하여 2003년에는 1,260만 3,500원에 이르러 7.81배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정겨내총생산의 전국평균을 100으로 할 경우 제주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상대적인 수준을 살펴보면 1985년 전국평균 대비 74.8에서 2003년에는 83.0으로 다소 증가하지는 했으나 아직도 전국평균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지역내총생산은 1985년 2,848억 9,100만원에서 연평균 7.1%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9,782억 2,800만원에 이르러 3.43배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공업의 지역내총생산은 1985년 271억 8,600만원에서 연평균 11.7%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1,988억 2,700만원에 이르러 7.31배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및 기타 서비스업의 지역내총생산은 1985년 4,247억 9,700만원에서 연평균 14.51%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4조 8,576억 8,700만원에 이르러 11.43배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도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85년의 경우 1차 산업이 38.66%, 2차 산업이 3.69%, 3차 산업이 57.65%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이 비중이 각각 21.31%, 3.37%, 75.32%로 변화하였고 2003년에는 이 비중이 각각 16.21%, 3.3%, 80.49%로서 사회간접자본(SOC) 및 기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것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주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이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특이한 점은 광공업부문이 입지적인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생산구조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경우 1989년 경제활동인구 중 1차 산업 종사자가 43.9%, 2차 산업 종사자가 4.5%, 3차 산업 종사자는 51.6%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 경제활동인구 중에는 1차 산업 종사자가 24.5%, 2차 산업 종사자가 4.4%, 3차 산업 종사자는 71.2%를 차지하여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취업인구를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에 이르기까지는 총취업인구의 40% 이상이 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주도가 특용작물을 비롯한 감귤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유치·육성시킨데 기인하여 이 부문에 많은 취업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 산업구조의 대폭적인 변화로 농림어업부문의 종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23%~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광공업부문에의 취업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89년 경제활동인구의 4.5%만이 광공업부문에 종사하였고 그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거의 변동이 없어 2004년 현재에도 그 비중은 4.4%에 불과하다. 광공업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이렇게 낮은 것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및 경제적인 구조 때문이다. 즉, 제주도의 경우 2차 산업의 기초자원인 지하자원이 전무한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특히 가공처리공업마저 제대로 육성되어 있지 않는 등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취약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광산업을 지역개발의 주도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도정시책에 따라 공해산업의 유치 및 개발을 제한한 것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산업부문에서의 취업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1964년에 시행된 제주도건설종합계획 이후의 각종 계획들이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상업지구로서의 기능 확대와 더불어 도시기반의 정비 확충에 기인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지역적인 발전 추세에 따라 3차 산업의 취업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1989년 총취업인구의 51.6%가 3차 산업에 종사하였는데 2004년에는 71.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함께 3차 산업 취업자의 비중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4. 세부 산업

##### (1) 농업 부문

제주도의 농업은 1960년대에 고구마, 유채, 참깨, 감귤 등이 생산되면서 비로소 근대농업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 농촌경제는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1970년대 말 일부 농산물의 수입자유화 시책으로 감귤을 제외한 농작물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주도 농업생산 구조도 변화

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는 온대 남부, 아열대 북한(北限)에 위치하여 농업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바람이 많고 화산회 토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용수를 저장하지 못하는 관계로 수도작이 육지부에 비하여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전작 및 목축이라는 서구적 영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지면적 중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많으며 특히 과수원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제주시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면적은 1980년 253.86km<sup>2</sup>에서 연평균 0.03%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255.53km<sup>2</sup>이다. 이를 종별로 살펴보면 밭은 1980년 전체 토지면적의 21.08%인 53.51km<sup>2</sup>를 점유하였으나 이후 연평균 2.69%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전체 토지면적의 11.2%인 28.61km<sup>2</sup>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수원은 1980년 전체 토지면적의 4.35%인 11.04km<sup>2</sup>를 점유하였으나 이후 연평균 4.4%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전체 토지면적의 11.65%인 29.76km<sup>2</sup>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밭작물 경작에서 감귤 중심의 과수 경작으로 토지 이용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임야는 1980년 전체 토지면적의 61.55%인 156.25km<sup>2</sup>를 점유하였으나 이후 연평균 0.85%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전체 토지면적의 50.31%인 128.55km<sup>2</sup>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는 1980년 전체 토지면적의 3.06%인 7.78km<sup>2</sup>를 점유하였으나 이후 연평균 2.57%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전체 토지면적의 5.46%인 13.96km<sup>2</sup>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핵가족화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주택수요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시 경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경지면적은 1965년 6,216.6ha이던 것이 1970년대 들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확대되었다가 최근 다시 축소되어 2002년 현재 5,910ha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총경지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경지이용 구조에 변화가 생겨 맥류, 두류, 서류 등의 식량작물 생산면적이 급격히 줄어드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과실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시 농업이 전통적인 자급자족형 영농에서 점차 도시근교형 영농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인구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주시 지역의 농가호수는 1965년 9,779가구에서 외환위기 전까지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농가호수가 증가되었다가 최근 다시 감소하여 2002년 현재 7,274가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시 지역에서 산업별 인구비율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농가호수의 변화와 함께 농가인구도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시의 농가인구는 1965년의 4만 5,406명에서 이후 연평균 1.37%로 감소하여 2002년 현재 2만 7,305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살펴보면 식량작물로는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이 있고 특용작물로는 면화, 유채, 참깨, 들깨 등이 있으며 각종 채소류와 감귤 등이 생산되고 있다. 식량작물의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1977년에 4,941ha에서 9,499M/T의 식량작물이 생산되었으나 이후 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연평균 5.51%와 4.64% 감소하여 2003년에는

1,133ha에서 2,762M/T가 생산되었다. 이를 작물별로 살펴보면, 미곡은 1977년에 78ha에서 347M/T가 생산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 이후에는 생산량이 전혀 없으며, 맥류(보리, 밀 등)는 1977년에 1,875ha에서 4,719M/T가 생산되었으나 이후 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연평균 4.63%와 4.05% 감소하여 2003년에는 546ha에서 1,610M/T가 생산되었고, 잡곡(조, 수수, 옥수수, 메밀 등)은 1977년에 377ha에서 546M/T가 생산되었으나 이후 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연평균 8.36%와 9.93% 감소하여 2003년에는 39ha에서 36M/T가 생산되었다. 그리고 두류(콩, 팥, 녹두 등)는 1977년에 2,483ha에서 2,659M/T가 생산되었으나 이후 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연평균 6.07%와 8.76% 감소하여 2003년에는 487ha에서 245M/T가 생산되었고, 서류(고구마, 담자)는 1977년에 169ha에서 1,225M/T가 생산되었으나 이후 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연평균 6.2%와 1.79% 감소하여 2003년에는 32ha에서 766M/T가 생산되었다.

또한 기타 농작물의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채소류(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호박, 배추, 시금치, 상추, 양배추, 무우, 당근, 고추, 파, 양파, 마늘, 생강 등)는 1977년에 328ha에서 5,383M/T가 생산되었으나 이후 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연평균 1.08%와 4.02% 증가하여 2003년에는 434ha에서 15,016M/T가 생산되었고, 특용작물(유채, 참깨, 들깨, 땅콩 등)은 1977년에 1,576ha에서 1,966M/T가 생산되었으나 이후 면적은 연평균 6.17%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연평균 1.11% 증가하여 2003년에는 301ha에서 2,622M/T가 생산되었으며, 과실류(감귤, 파인애플, 단감, 키위 등)는 1977년에 1,308ha에서 9,100M/T가 생산되었으나 이후 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연평균 3.38%와 7.99% 증가하여 2003년에는 3,104ha에서 67,233M/T가 생산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2) 축산업 부문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고 5만8천ha의 광활한 초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제주도는 기온이 온화하고 강우량이 많아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축산업에 유리한 자연 환경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리한 여건도 없지 않다. 즉, 주민의 대부분이 초원지대와 거리가 먼 해안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초원지대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초원지대는 토양이 척박하고 수원이 거의 없으며 진드기와 같은 가축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 서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원지대는 암석이 많고 고사리 등 초지개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이 자라고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 축산업은 중산간지대의 부락 공동목야지에서 사육하는 방식으로 극히 조방적인 경영을 해 왔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제1, 제2횡단도로가 개설되고 1966년부터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한 초지 활성화사업이 본격화됨으로써 제주도 축산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제주시 지역에서 오늘날까지 사육해 온 주 가축은 우마(牛馬)였다. 한우는 1977년에 2,050가

구에서 4,365마리가 사육되었으나 이후 사육호수와 마리수가 각각 연평균 3.41%와 3.71% 감소하여 2003년에는 833가구에서 1,632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젓소는 1977년에 14가구에서 311마리가 사육되었으나 이후 사육호수와 마리수가 각각 연평균 1.57%와 4.71% 증가하여 2003년에는 21가구에서 1,038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말(馬)은 1977년에 368가구에서 507마리가 사육되었으나 이후 사육호수는 연평균 5.4% 감소하였으나 마리수는 연평균 5.37%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87가구에서 1,977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우마 이외에 제주시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으로는 돼지, 면양, 사슴, 개, 닭 등이 있는데 면양은 극히 적은 수가 사육되고 있다. 돼지는 1977년에 4,623가구에서 5,595마리가 사육되었으나 이후 사육호수는 연평균 19.79% 감소하였으나 마리수는 연평균 2.03% 증가하여 2003년에는 15가구에서 9,445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슴은 1977년에 2가구에서 20마리가 사육되었으나 이후 사육호수와 마리수가 각각 연평균 9.47%와 13.22%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21가구에서 50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한편, 개는 1977년에 2,081가구에서 2,236마리가 사육되었으나 이후 사육호수와 마리수가 각각 연평균 0.96%와 3.89%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2,665가구에서 6,03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닭은 1977년에 13가구에서 75,300마리가 사육되었으나 이후 사육호수는 연평균 1.86% 증가하였으나 마리수는 연평균 4.79% 감소하여 2003년에는 21가구에서 21,02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 (3) 수산업 부문

제주도는 해안선의 길이가 2백53km에 이르는 등 도 자체가 가지는 여건으로 보아 일찍부터 어업이 성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근해의 어장은 수온, 수심, 대륙붕의 발달 등의 면에서 각종 어족의 번식, 정착 및 월동에 최적 환경이 되고 있고, 동해와 서해로 회유하는 주요 어족의 회유경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족이 풍부하다. 또한 도내 어항은 개발 여하에 따라 남해 및 동지나해로 출어하는 어선의 대피항 또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제주도는 본래부터 어업활동을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단조로운 해안선으로 인해 천연의 양항이 없다는 점, 수산물의 대중소비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지표와 마찰이 적은 해양으로 둘러싸여 풍속의 감소가 적은데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저기압이나 태풍의 통과경로에 위치하여 파도가 매우 거칠다는 점 등 수산업 발전에 불리한 여건도 아울러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수산업은 수심이 얕은 해안 인근해역에서 해녀와 소형어선에 의한 채취어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인근해역을 대상으로 한 소라, 전복 등의 활어와 톳, 감태, 미역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는 소극적인 수산업의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채취생산 방식은 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고 활어와 해조류의 대일 수출이 크게 신장되었던 60년대 후반에는 채취생산 방식이 더욱 가속화되어 과다채취에 의한 자원고갈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어민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고, 수산인구의 감소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정체현상을 보이던 제주도의 수산업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수산물의 대일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도민의 소득증대와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도내 수요가 신장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천해(淺海)지역의 자원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패류증식사업이 전개됨으로써 천해어업은 채취보다는 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부터 시작된 수산자원의 보호와 배양을 목적으로 한 인공어초사업은 어족의 서식환경을 좋게 하여 고갈되던 연안어장의 자원을 회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60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온 어항개발사업, 수산물 유통처리시설 확충사업 및 어선장비 현대화사업 등이 착실히 진행되어 연근해 어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수산업은 계속 성장하였으며 구조면에서도 한층 고도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어항은 물론 어선의 규모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주도 수산업의 발전형태에 따라 제주도 지역의 수산업도 이상과 같은 여건 하에서 발전하여 왔다.

먼저 제주 지역의 어가 및 어가 인구를 살펴보면 어업 가구수는 1970년 14,760가구였으나 이후 연평균 2.37% 감소하여 2003년에는 6,699가구이고, 어가 인구는 1970년 78,478명이었으나 이후 연평균 4.15% 감소하여 2003년에는 19,381명이며, 어업종사자 가구원은 1970년 22,497명이었으나 이후 연평균 2.89% 감소하여 2003년에는 8,548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지역 어업의 또 하나 특징은 양식업이 발달치 못하고 대부분의 어업형태가 어로작업이라는 점인데, 대부분의 어획량이 80년대 초까지는 어류와 해조류로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는 어류와 연체동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에는 제주도 지역에 해녀들의 활동으로 천해(淺海)어업이 활발했으나 80년대 들어서면서 천해어업 활동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의 총어획량은 1977년 5,254M/T이었으나 이후 연평균 1.08% 감소하여 2003년에는 3,967M/T를 기록하였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어류의 어획량은 1977년 1,294M/T이었으나 이후 연평균 4.34% 증가하여 2003년에는 3,906M/T를 기록하면서 총어획량의 98.46%를 점하고 있으며, 해조류 어획량은 1977년 3,342M/T이었으나 이후 연평균 19.47% 감소하여 2003년에는 12M/T를 기록하고 있고, 연체동물 어획량은 1983년 2,220M/T이었으나 2003년에는 49M/T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어민의 생계수단인 어선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동력선의 비중이 증가하고 어선이 소형화에서 중형화로 전환되면서 어로작업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업기반시설도 현재로서는 빈약한 편이다. 이를 어선 규모별로 살펴보면, 먼저 1톤 미만과 1톤 이상-5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1977년 15척과 96척으로 전체 어선의 9.93%와 63.58%를 각각 차지하였는데 이후 연평균 5.61%와 3.94%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62척과 262척으로 전체 어선의 11.18%와 47.29%를 차지하고 있다.

## 5. 맺음말

제주도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 개발의 저해요인은 용수, 교통, 통신, 동력 등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감귤원이 조성되어 도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1970년대에 들어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제주시의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되기 시작하였는데 2003년 현재 제주시의 생활수준은 대체적으로 전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먼저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개발,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의 도시집중화 및 핵가족화에 따라 세대수가 대폭 증가하는데 반하여 주택의 증가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2003년 현재 제주시의 주택보급률은 95.2%로서 제주도 평균인 100.8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질이 강수를 저장하지 못하는 관계로 용수가 부족하여 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으나 지하수 개발 등을 통한 용수자원 확보로 지금은 용수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2003년 현재 제주시의 1일1인당 급수량은 347ℓ로서 제주도 평균 328ℓ보다 높은 수준이며 하수도보급률 역시 2003년 현재 96.4%로서 제주도 평균 64.7%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도로포장률 및 세대당 자동차대수는 2003년 현재 92% 및 1.05대로서 제주도 평균인 82.2%와 1.03대를 상회하고 있고, 이 외에도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교육, 보건,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등 문화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어 제주시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되었다.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제주도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제주시민의 생활환경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